

제 1 장

2009 마약류 범죄 백서

서론

제1절 마약류의 개요

1. 정의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음
-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이 있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2. 종류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양양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킴
-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의존성 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반합성 마약으로, 그리고 제조원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함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1) 마약

가) 개요

-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함유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나) 종류

(1) 천연마약

(가) 양귀비

- 양귀비는 일명 ‘앵속’ (opium poppy, 罂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임



[그림 1-1] 양귀비

- 기원전 5,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편에 관한 지식을 돌에 새겨서 전한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이며, 그 뒤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함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 및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음
-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국내에서의 양귀비는 대부분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 상비약이나 동물 치료약으로 밀경작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음

(나) 아편(阿片)

- 아편(opium)은 설익은 양귀비의 열매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우윳빛 추출액을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킨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함



[그림 1-2] 아편

-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아편을 처음 한두 번 흡입하였을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하는 등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이 흡입을 하여야 되고 이는 결국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이어짐
-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임
- 이러한 폐단으로 영국과 아편전쟁(1840~1842)을 벌였던 중국(당시 淸國)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음



[그림 1-3]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는 모습

(다) 모르핀

-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을 지닌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ürner가 최초로 아편에서 분리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Morpheus(꿈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명명함
- 아편으로부터 추출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과가 뛰어난 반면,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 중단시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킴
-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정도 이를 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mg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이상을 투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됨



[그림 1-4] 모르핀

(라) 코데인

-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서 의학적으로 진통작용은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은 탁월하며, 비교적 신체적 의존성은 적은 편이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함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 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음
- 최근 코데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방감초편¹⁾이 우리나라에서 살빼는 약으로 알려져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마) 헤로인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 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천연마약임

1) 중국 시종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기약으로 모르핀(3mg/g)과 코데인(1.3mg/g)함유



[그림 1-5] 헤로인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 모르핀을 원료로 한 만큼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함
- 헤로인은 ‘용감한·강력한’의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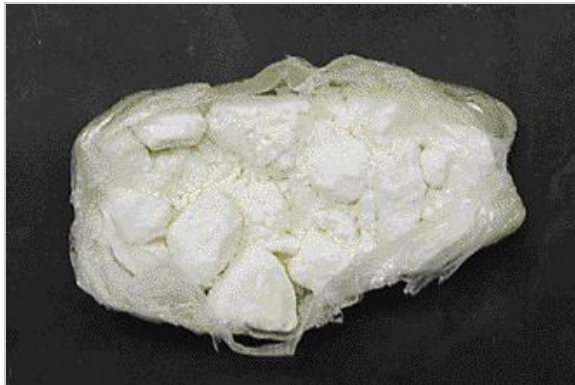
(바) 코카인

-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일으키는 천연마약임
- 코카인을 씹으면 잎속의 알칼로이드가 사람의 점막에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 중 최면효과를 내기 위해, 서민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함



[그림 1-6] 코카나무와 열매

-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시 유럽에 전해진 코카잎은 1800년대 중반에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1873년에는 의료용 진통제로서 처음 사용되었음
- 남미일대에서 재배된 코카잎은 농부가 직접 잎사귀를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를 만들고 이를 정제하여 코카인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글 내 밀제조시설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은밀히 코카인 추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규제 하에 코카인을 정식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음
- 남미의 일부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용자들은 수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를 놓아 투약함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이 일어나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함



[그림 1-7] 코카인



[그림 1-8] 크랙

-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하는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몇 배나 약효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으며, 유리관에 넣어 가열, 기포화시켜 흡입함

(2) 합성마약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 모르핀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핀란(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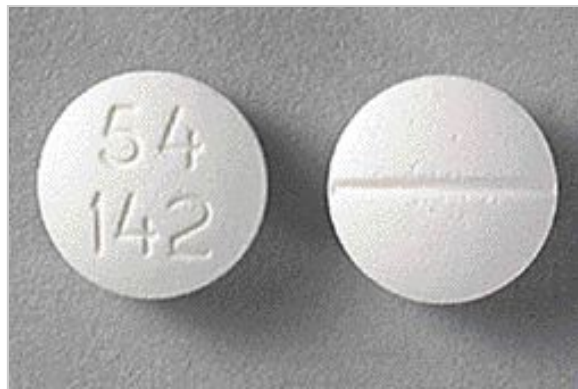
(가) 페치딘계

- 페치딘(pethidine)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합성마약으로 1939년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의 O. 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어 당시 ‘Dolantin’ 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고, ‘Demerol’, ‘Pethadel’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치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 등 약 23종이 있음
- 페치딘은 화학적으로는 모르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있어서 모르핀과 유사하고 진통효과 외에 진정효과도 있으며 투약시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진통제임

(나) 메사돈계

- 메사돈(methadone)은 2차대전 중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에 의해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합성마약으로 현재 메사돈, 아세틸메사돈, 디피파논 등 약 22종이 알려져 있음
- 개발 당시 메사돈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작 2차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화학적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약효가 모르핀보다 더 긴 24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전후 마약중독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당시 23개사의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사돈을 일반약품에 불법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제주사 등으로 속이고 팔다가 수만 명의 마약 중독자를 발생시킨 소위 ‘메사돈 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그림 1-9] 메사돈

2) 향정신성의약품

가) 개요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킴
-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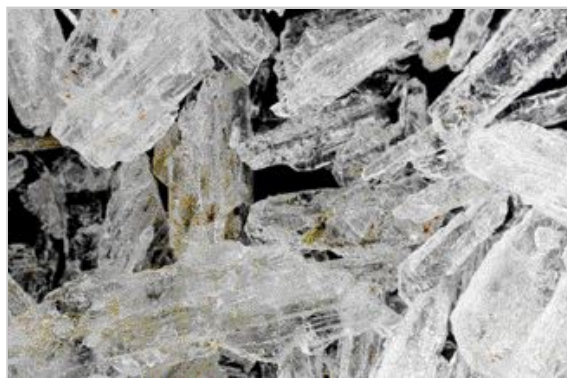
-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로 나눌 수 있음

나) 종류

(1) 메스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히로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암페타민류에는 메스암페타민을 비롯 암페타민, 텍스트로암페타민, 텍스트로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시킴
- 메스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 형태의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불리며, 불법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충’으로 불리고 있음. 미국의 경우 결정체는 ‘Ice’, 가루·액체형태는 ‘speed’로 각 호칭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호칭하고 있음



[그림 1-10] 메스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그림 1-11] 마황

-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 (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으며,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지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스암페타민’이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2)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된 이래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음



[그림 1-12] MDMA

-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되고 있음
- 약리적 작용으로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 복용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함

(3) LSD

-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Albert Hofmann에 의하여 최초로 합성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 종이 또는 정제에 LSD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림 1-13] LSD 스티커



[그림 1-14] 정제형 LSD

(4) 날부핀(Nalbuphine)

- 날부핀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각성으로 인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었고, 일명 '누바인' 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그림 1-15] 날부핀

- 피하 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며 약효 지속시간은 3~6시간이며, 날부핀 3mg은 필로폰 6mg에 해당하는 강력한 환각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이 있음

(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거담제로서 일명 '러미라' 라고 불리우고 있는 약물로 가격이 필로폰, 날부핀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이 남용하고 있음



[그림1-16] 덱스트로메토르판

- 카리소프로돌은 근육 이완제로서 일명 'S' 정 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약물로서 러미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음

(6)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국교포 보따리 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 약물로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 · 분미림편 · 섬수 · 상주청 · 철심감미 교환 · 패씨감비환 · 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음



[그림 1-17] 펜플루라민

- 과다 복용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음

(7) 케타민(Ketamine) 등

- 정부 당국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케타민 등 5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 이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6. 2. 16.부터 시행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지만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 있으며, 특히 동물용 의약품으로 유통될 때 유통질서가 문란해져서 그 남용 가능성이 높음
- 유흥업소 및 클럽에서 ‘date rape drug’으로 불리며, 정맥이나 근육에 주사하거나 흡연 또는 흡입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남용방식에 따라 1~6시간 정도 환각효과가 지속되며, 맥박 및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동반



[그림 1-18] 케타민

- 이외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아민엠펙’,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불면증치료제인 ‘쿠아제팜’도 그 남용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

3) 대마

가) 개요

- 대마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으나 의학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없음



[그림 1-19] 대마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이 그 원산지라고 하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황제시대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도취감을 얻기 위한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었음
- 흡연용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임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나) 종류

(1) 대마초(大麻草)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그 학명이 Cannabis Sativa Linne이며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 불리고 있음
- 그 중 암나무의 경우에는 씨앗 생성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tetrahydro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도취, 환각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함. 한편 마리화나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그림 1-20] 대마초와 흡입기구

-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됨.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 공복감 등을 느끼며 사고의 형성 및 표현의 예민한 변화와 함께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등도 오묘하게 변화하는 반면, 많은 양을 남용할 때에는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의 상실,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함
- 대마의 남용이 위험한 것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음

(2) 해쉬쉬(Hashish)

-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이 해쉬쉬(hashish)인데,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 덩어리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고 있어서 대마초보다 8배 내지 10배 가량 작용이 강함
- 보통 1kg의 해쉬쉬를 제조하기 위해 약 30kg의 대마초 처리를 요함



[그림 1-21] 해쉬쉬

- 해쉬쉬 오일(Hashish Oil)은 대마로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고도로 농축되어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르는 물질임
-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함

3. 마약류별 특성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마약	천연 마약	아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혼동, 사망	2
	합성 마약	메사돈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치딘	억제	진정·진통	주사	"	3~6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 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경구 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	4~8
		LSD	환각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덱스트로 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억제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악한 환각	2~4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1. 국제 개황

가. 남용 현황

- 2007년 유엔 발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1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마약류를 경험한 전 세계 마약류 남용자 수는 약 2억 명으로, 15~64세 세계인구의 약 4.8%로 추정됨. 이 가운데 월(月) 최소 1회 이상 마약류를 남용하는 자의 수는 약 1억 1,000만 명(전 세계 15~64세 인구의 약 2.6%), 상습 중독자 수는 2,500만 명(전 세계 15~64세 인구의 약 0.6%)으로 추정됨
- 전 세계의 마약류 남용자 중 대마 남용자는 1억 6,000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남용자는 3,400만 명(암페타민류 2,500만 명, 엑스터시 900만 명), 이 외에 아편류 남용자는 1,600만 명(헤로인 1,100만 명), 코카인 남용자 1,4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지역별 남용 현황을 보면 아편 및 헤로인은 중국에서, 코카인류는 미주지역, 메스암페타민은 동남아시아, 극동지역 및 북미지역에서, 엑스터시는 북미와 유럽, 호주 등지에서 남용되고 있으며 대마는 지역을 막론하고 남용되는 실정임
- 2000년대에 들어서 대마 및 ATS¹⁾ 남용은 상당히 증가한 반면, 아편과 코카인 남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특히 ATS의 경우 2003년 안정화 추세 이후 극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남용 확산으로 다시 증가함

나. 최근 동향

- 세계적으로 마약류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 또는 국제회의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UNODC 및 각국의 마약 관련 법집행이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최근 마약류 범죄는 크게 줄어든 실정임
- 마약류 밀거래 경로는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카인의 경우, 과거 대부분의 코카인이 카리브해, 멕시코 국경으로 밀수되었으나 현재는 유럽지역에서의 코카인 수요증대로 인하여 서아프리카지역에서의 밀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임
- 마약류범죄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동남아 지역에서의 아편 생산과 안데스 지방에서의 코카인 생산 및 개발도상국과 유럽지역의 ATS류 남용은 여전히 당면과제로써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임.
- 각국의 법집행기관들이 국가간에 거래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국의 관련 기관들의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며, 이에 있어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임
- 마약류 중독은 각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다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세계적 공공 안전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마약 퇴치 노력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 마약류 생산 및 유통 추세

- 아편(Opium) 및 헤로인(Heroin)
 -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²⁾로 지칭되는 동남아 지역의 아편생산지대는 국제기구의 마약퇴치 지원과 함께 해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 힘입어 동 지역의 양귀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음. 반면 ‘황금의 초승달지대(Golden Crescent)’³⁾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 현재 전 세계 재배 면적의

1) 암페타민류 각성제

2) 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지역

3)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접경지역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현재 아편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의 양귀비 재배 면적이 2007년 193,000헥타르에서 2008년 157,000헥타르로 확연한 감소를 보인 반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동 기간 29,200헥타르에서 30,100헥타르로 그 변화는 미미하였음
- 황금의 초승달지대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아편은 이란을 경유하여 유럽방면으로,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시아방면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 코카인(Cocaine)

- 대량의 코카인이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 안데스산맥 주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7년 기준 콜롬비아가 6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페루 290톤, 볼리비아 104톤을 차지하고 있음
- 코카인 총 경작 면적은 2007년 181,600헥타르로 2006년 대비 약 16%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콜롬비아 지역 내에서의 경작 면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라모스타 카르텔’, ‘칼리 카르텔’ 등의 콜롬비아 마약조직은 주로 중미, 동서부아프리카 지역을 경유하여 미국, 중남미 및 유럽전역으로 코카인을 밀반출하고 있음

● 암페타민류 각성제 (ATS : Amphetamine-type Stimulants)

- ATS류의 총생산량은 2000년 이후 500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ATS류의 소매시장은 약 6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메스암페타민은 중국, 미얀마,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과 캐나다, 미국의 북미지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 남아프리카지역에서 생산이 보고되고 있음
- MDMA(Ecstasy, 엑스터시)의 경우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생산(연간 1,000만정 규모)되어 유럽 전지역, 호주, 미주, 동남아지역 등으로 공급되고 있음
- 암페타민은 주로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지역에서 생산되어 주변지역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대마(Canna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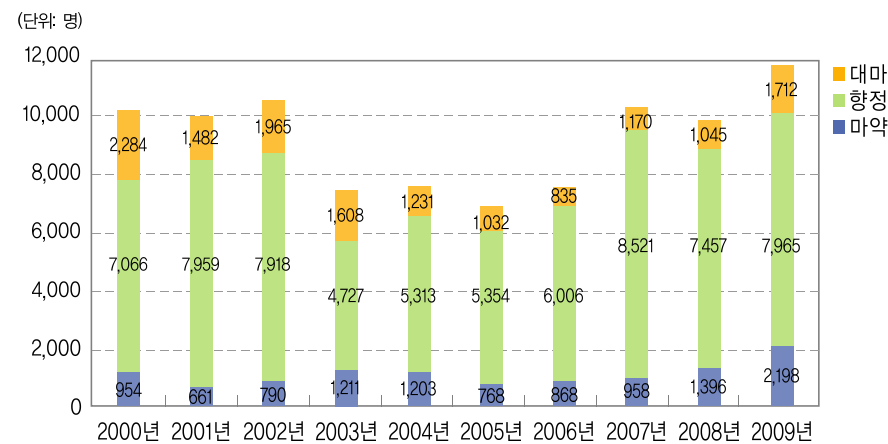
- 대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환각제로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2006년 한 해 생산량은 약 41,4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5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음
- 2006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대마의 55%는 미주지역에서, 22%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아시아 및 유럽, 호주 지역에서는 비교적 적은 양의 대마가 생산된 것으로 집계됨
- 대마는 전 세계 각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코카인이나 헤로인에 비해 훨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국으로 밀수되고 있는 실정임
- 해쉬쉬(대마수지)의 주요 생산지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레바논 등 중동지역 및 모로코,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지역임
- 2007년 전 세계 대마 압수량은 5,557톤으로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멕시코에서 2,176톤, 미국에서 1,446톤이 각 압수되어 전체 압수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쉬쉬는 2007년 세계적으로 1,210톤이 압수되었고, 특히 스페인에서는 전체 압수량의 54%에 달하는 653톤이 압수되었으며, 모로코 117톤, 파키스탄 109톤, 아프가니스탄 83톤이 각 압수되었음

2. 국내 개황

가. 일반동향

- 마약류 사범수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다가 2002년도에 실시된 마약류사범 퇴치전략의 성공(10개파 224명 단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였고, 검찰이 주축이 되어 국내 마약생산 및 공급조직을 철저히 단속한 결과, 국내 대부분의 마약류밀조조직 및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1차 공급조직은 거의 궤멸된 상태로 보임

- 그러나 2006년도 1건 4명, 2007년도 1건 2명이 메스암페타민의 주원료인 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과 살 빼는 약에서 이를 추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사건이 적발됨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 됨
- 2009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11,875명으로 전년도 대비 20.0% 증가하였고,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 또한 2,252명으로 전년도 대비 24.7% 증가하였음. 반면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외국산 밀반입량은 10,223g으로 전년대비 54.5%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대마초의 경우 외국산 밀반입량은 21,792g으로 전년대비 49.5% 증가하였음
- 전체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예방적 차원에서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 것에 기인함



[그림 1-22]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나. 경유 목적 마약사범 증가 및 국제범죄조직 개입 마약류 밀수사건 증가

- 필로폰 관련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면, 필로폰이 한국의 주종 마약류로 그 잠재적 수요층이 상존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제 거래조직이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하거나 한국인 및 일본인 등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2008년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나이지리아계 코카인 밀수조직이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코카인을 브라질을 거쳐 국내에 밀반입하고 일본으로 재수출하려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09년도에는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기존의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대만으로의 루트에서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한국을 경유 대만으로의 루트로 변경하여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고용하여 헤로인 4.94kg을 5회에 걸쳐 밀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마약청정국가로 분류된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면 최종 소비지인 국가에서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 그동안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세계 각국의 협조로 헤로인 원료 물질인 아편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아편을 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대체작물 지원 정책이 대대적 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이 지역 국제 마약거래 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편 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주종 마약류가 아편, 헤로인에서 필로폰으로 변화하고 있고, 필로폰 공급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경유목적 마약류사범의 증가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2007년도에 일본 야쿠자 등이 개입하여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가 검거된 사건, 2008년도에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말레이시아, 터키를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최종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사건, 2009년도에 대만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중국산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사건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싱가포르를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나이지리아인 및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일본에 밀수출하려던 사건 등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일본 야쿠자조직, 아프리카범죄조직, 대만범죄조직 등 국제범죄조직이 개입하여 한국을 중간 경유하여 일본, 대만 등을 마약류 최종 소비처로 한 국제마약밀매 범죄의 실례로 앞으로 국제범죄조직 형태의 마약류 대량 밀수 및 밀매 범죄는 빈발할 것으로 보임

다. 해외 마약류 제조·공급책에 의한 국제우편거래 증가

- 검찰 등 수사기관의 마약퇴치 노력의 결과 2003년 이래 국내 대규모 밀조·밀매 사범은 거의 사라졌으나, 외국 마약거래조직과 연계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운반 위험부담이 적어 국내 소비 목적 소규모 마약류 밀반입 증가로 이어짐
- 2009년도 국제우편 거래로 인한 밀수사례는 96건(2008년 112건, 2007년 135건, 2006년 109건, 2005년 67건, 2004년 30건)임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급증

-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국내 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감에 비례하여 일정한 주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2001년 70명, 2002년 88명, 2003년 86명, 2004년 203명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162명, 2006년 116명, 2007년 298명, 2008년 928명, 2009년 890명으로 최근 급증하였음
- 1995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던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1998년도 IMF체제로 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일시 출국하자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1999년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36%나 증가하는 급증 추세를 보였고, 2005년도 전년대비 20.2% 감소한 162명, 2006년도 전년대비 28.4% 감소한 116명(총 19개국)인 반면, 2007년도 전년대비 157.8% 증가한 298명(총 28개국), 2008년도 전년대비 211.4% 증가한 928명(총 29개국),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4.1% 감소한 890명(총 28개국)을 적발하였는데, 2009년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116만 명을 넘는 추세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향정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태국인 필로폰 등 밀수 및 사용사범의 증가와 중국인 필로폰 밀매 및 사용사범의 증가에 원인이 있고, 대마사범의 경우도 태국인 공장 근로자들의 급증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원어민 외국어 강사의 증가에 따른 사용사범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국적별로는 1997년도 이후 이란인과 필리핀인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도 이후 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미국인이 1위(31.8%)를 차지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33.7%, 29.1%, 16.0%로 이란인이 1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미국인이 1위(39.7%), 2007년도에는 중국인이 1위(21.1%),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각 76.6%, 64.9%로 태국인이 1위를 차지하였음

마. 농어촌 양귀비·대마 경작 집중 단속

- 2009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이 2008년도 9,898명 대비 20.0% 늘어난 11,875명이 된 이유는 매년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실시하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에 허가 없이 벽지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노령층 주민들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상비약 등 용도로 재배하다가 집중적으로 적발된 점에도 그 원인이 큼
- 2009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사범은 2,268명으로 2008년도 1,392명 대비 63.9%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선 경찰이 농어촌 도서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로 보이고, 특히 양귀비사범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층의 점유율이 91.2%, 농업 및 주부 비율이 60.8%, 여성 비율이 61.1%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민간요법 등의 용도로 양귀비를 밀경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임

